

AI 기능 활용...수채화와 유화 감성 '듬뿍'

CULTURE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사진작가 조영신 개인전 오늘부터 무등갤러리서 '대명매'·'인물' 등 10년 동안 작품 활동...39점 선봬



'대명매-2'

찾아보면 예술분야 재야의 고수들은 많다.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한길을 걸으며 스스로 실력을 쌓고 깊이를 더해온 예인들이 많은 이야기다. 한때는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처럼 취급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전공이 무너지는 등 영역이 점차 약화되는 예술 경계에서 전공 유무를 따지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랫동안 전남대병원 교수로 재직했던 남편(정신시 전남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을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분야에 전력을 하지 못하다 남편의 정년 후 10여년 전부터 사진에 몰입돼 열성을 다해 활동을 펼쳐온 한 사진 작가가 첫 전시를 앞두고 있다.

주인공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사진에 빠져 프로작가로 데뷔한 뒤 그동안 10여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투영된 첫 전시전을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갖는 전남 곡성 출생 작가 조영신씨(71·광주 동구 학동). 'The Earth-사진이 그림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AI 기능을 넣어 시도한 작품인 눈 쌓인 대명매와 꽃이 만개한 대명매 등 39점을 출품했다. 대명매 2

점은 전남대 의대에 기증했으며, 새롭게 건립될 치과대학에 다시 기증하기로 했다. 전시 대표작으로 꼽히는 '대명매'(현 흥매)는 전남대 민주마루(옛 대강당) 앞에 위치한 매화로 1621년 서정관으로 명나라를 방문한 고부전이라는

분이 명나라 황제인 희종으로부터 연분홍 흥매화를 선물로 받아 고향인 담양에 식재한 뒤 대명매라 불렀다. 그런데 후손으로 전남대 농대학장을 지낸 고재천 교수가 전남대에 기증해 이식된 것으로 수령이 400년 정도 됐다고 한다. 한때 호남 5대 매화로 뽑혔다는 설명이다.

작가는 이 대명매를 눈이 쌓였을 때와 꽃이 피었을 때 따로 카메라 앵글에 담아냈다. 눈이 내렸을 때와 꽃이 피었을 때 기간은 불과 10여일만에 일어난 자연 현상이었다. 자연의 인내와 생명의 아름다움 등을 앵글에 담아냈고, AI 기능을 활용해 수채화와 유화의 감성을 덧입히는 등 '조영신표' 사진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또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이 인물이다. 그의 인물은 내팔 화장터 다리 위에서 만난 남성들의 강렬한 시선을 담은 작품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더욱 깊어진 인간의 표정을 포착하고 있다.

조 작가는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이게 돼 너무 행복하다. 그냥 주부로 살 때는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하고 부터는 대개 행복감이 훨씬 쉰다. 사진을 찍으면서 개인적으로 관찰력이 좋아진 것 같다. 또 포토샵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것이 AI였다. AI로 활용해 하는 작업이 딱 한번 시도해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쉽지 않다. 작품 중에

작업 시간이 20일 걸린 작품도 있다"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풍경, 그리고 그림을 결합한 사진전을 만들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년 유럽으로 투어를 다녀오는 등 졸곧 교류를 해왔다는 장현우 화가는 그의 활동에 대해 "예술적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사진작업을 펼쳐왔다. 예술작업이 재현에 그쳐서는 안되고 자신의 철학을 투영해 재해석해낸다. 저도 오히려 자극을 받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시에서는 자연과 사람, 새 등을 주제로 한 8분 분량의 영상을 설치, 상영하기로 해 전시장을 찾은 이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인물과 도시, 골목 등 테마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국내외 기획전과 국제 사진 공모전, 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조영신 작가는 올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국제사진예술대회인 미국사진협회가 공인한 국제 사진공모전 'KOREA PHOTO ART 2025' 포토저널리즘 부문에서 PSA HM Ribbon을 입상했다.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간사를 맡고 있으며, 광주 무등사진 동우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회화 속에 담긴 삶 속 '사유의 조각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은)은 2025년 '전시공간지원사업'의 2·3회차 전시를 6월 한 달간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2회차는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3회차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전시공간지원사업'은 지역 시각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문화재단의 대표 공공예술 지원사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작가들이 풀어낸 일상과 감정, 내면의 이야기를 시각예술 언어로 담아 관람객에게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2회차 전시는 '일상, 그리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시각예술 작가 6인이 참여한 단체전으로, 일상 속 장면과 감정, 사유의 조각들을 회화 작품 총 23점에 담아낸다.

전시를 기획한 단체 일상의 페이지는 반복되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은 하루하루에 주목하며, 이를 예술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치는 풍경, 머무는 공간, 익숙한 대화 속 감정 등 작가가 마주한 다양한 장면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작가의 내밀한 감정을 담아내는 동시에 관람자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여백을 통해 '공감의 연결'을 시도한다.

3회차 나다영 작가의 개인전 '연결의 연속'은 내면의 기록에서 출발해 외부 세계와 이어지는 감정

광주문화재단, '전시공간지원사업'
2·3회차展 29일까지 작가 7명 출품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서 열려



김혜민 작 '비밀의 문을 열다'



이그린 작 '휴식이 주는 햇살'

의 흐름을 설치미술로 시각화한다. 작가는 한때 생명이 있던 재료인 '베지터블 가죽'을 주요 매체로 사용해 상처와 주름, 시간의 흔적이 담긴 가죽을 통해 인간 내면의 생명력과 아픔을 담담하게 표현한다. 작품은 짧은 에세이처럼 구성돼 조각난 감정을 엮은 하나의 문장이 되고, 이는 관람자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작가의 내면을 드러낸다.

나다영 작가는 "고요한 그림 속에서도 감정은 확장되고 흔들리며 그로 인해 다시 연결되고 변화해 왔다"면서 "이번 전시가 나를 담담히 드러낸 작

업을 통해 관람객과 이어지고, 새로운 감정의 흐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2·3회차 전시는 일상의 감정과 내면의 흐름을 섬세하게 시각화한 지역 작가들의 진정성 있는 작업을 통해 예술이 삶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작품에 투영하고 작가와 소통하며, 예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자활 참여주민들 시와 소설로 '오월' 읽다

오월문예연구소 12월까지 광주 동구지역자활센터

한 편의 소설과 서른 편의 시로 읽는 오월문예예술자활 참여주민과 함께하는 문학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월문예연구소(대표 나종영)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소년이 온다'와 서른 편의 시를 함께 읽으며 오월 정신을 되새기고 일상 속 문학을 향유하는 프로그램 '한 편의 소설과 서른 편의 시로 읽는 오월문예예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 '예술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광주시 동구지역자활센터(금남로 231) 3층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5·18 국립묘지 및 주요 사적지에서도 문학 현장 체험이 이뤄진다. 강의는 오월문예연구소 소장 조진태·조성국·김미숙 시인 등이 강의를 맡아 오월의 역사와 문학의 울림을 시민과 나눌 예정이다.

문학도시 광주에서 '소년이 온다'라는 세계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시민 독서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문학작품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 자기 치유, 인문 상상력 증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



조진태

조성국

김미숙

품을 비롯한 문학 텍스트를 통해 시민이 책과 문학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활참여주민의 자기 존엄 회복과 치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소외계층인 자활참여주민들이 문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긍심을 회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문화적 역할을 함양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문학 독자층 확대 및 문학 향유 분위기 조성 시 낭송, 문장 읽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독자층을 형성하고, 책 읽는 자활참여주민이 지역사회 속 문학 향유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오월문예연구소는 2015년 설립 이래 '오월인문학'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인문교육을 진행해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